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에 관한 연구

박현빈* · 김동필**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르면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건설측면에서 정의되어진 내용인데, 실제 조경이라는 분야가 관할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역사적으로도 산업혁명과 도시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의 환경문제의 저감을 위한 목적 그리고 개인의 여가 및 건강 활동을 위한 공간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조경은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조성 및 설치와 관련된 국부적인 범위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경을 대표하는 공원, 녹지 그리고 광장은 법률상으로 국가 기반시설로 지정이 된 점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공간 및 시설들의 특성상 불특정한 이용객들과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므로 조성 이후의 이용에 대한 관리까지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이용하고 싶은 여가공간 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조경과 관련된 시설 및 공간들의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해 조경에서 발생되어지는 분쟁에 대해 해결 및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쟁의 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당사자들은 판례들을 참고하며, 법관들도 판단을 위해 참조판례로서 활용한다. 이는 법치국가에서의 판례는 법의 근거로 작성되어졌기에 다소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대륙법 혹은 성문법이라 불리는 법제 속하는 국내에서 영미법계 국가와는 반대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제도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적 배경과 판례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조경에서의 판례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학술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판례를 조회 및 활용을 허용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판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조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및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사이트에 판시 공개된 조경관련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명시된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조항에 비춰 국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제외하기로 한다.

2. 조사방법

연구대상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있는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판례들을 수집하였다. 검색을 위해 조경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각종 기관에서 고시한 법 조항 혹은 제도 및 기준 등을 참고하여 조경에서 대표적인 단어 혹은 중복 및 자주 이용되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별된 판례들 1차적으로 MSwor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판결 전문을 저장하였다. 이후 이들 중 판결내용의 누락으로 내용과약이 힘들거나 혹은 검색에 활용한 키워드들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조경과의 관계성적인 판례들은 2차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선별하여 제외하였다.

3. 분석방법

대부분의 판결문들은 일반적으로 법관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판결주제가 작성되어 지는데, 객관적인 판결주제가 아닌 조경업장에서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조경과 관련된 각종 법, 제도, 기준 등을 참고하여 계획, 시공, 이용 및 관리 3가지의 유형화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그 외 조경과는 깊은 관련은 없지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조경관련판례를 대상으로 유형화에 관한 진행하였다. 이중 계획 항목으로 분류되어진 판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획과 관련된 분쟁은 국가나 지자체 등과 같은 기관들의 계획, 결정, 허가, 계약 등에 해당되어지는 판례들로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조경은 계획에 있어서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간과 기관 간의 상호 견해차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에서 나타난 분쟁의 유형은 대부분 일반적인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조경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경우, 이용 및 관리의 유형으로 분류된 판례들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조사되어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공원의 안전 지킴 혹은 관리방식을 설정에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로 분류되어진 사건들은 대부분 조경과 관련성은 적으나, 판결에 적용된 조례 등에 조경이 언급되어진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조경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수용되는 재판방식인 3심 제도에서 최고법원기관의 자리를 맡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법리적, 관행적으로도 판단하기 힘든 사안들을 주로 다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기관들 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3권분립 제도상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과 집행을 내리는 것에만 권한이 있기에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와는 달리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법과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이루어진 사실상의 구속력보다는 다른 이유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회적으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주목하며 존중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법기관의 역할인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앞으로 조경에서 발생되어지는 분쟁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거나 혹은 해결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홍일표(2007) 판례의 형성과 구속력의 범위.
2. 송민경(2018) 판례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3. 신익순(2013) 공원 관련 국내 판례의 현황과 속성.
4. 국토교통부(2015) 조경기준.
5. 국토교통부(2016) 조경표준시방서.
6. 법무부 대한민국 헌법.
7. 법무부 법원조직법.
8. 법무부 형사소송법.
9. 법무부 민사소송법.
10.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